

## 연방대법원

### 동성결혼 심리 거부

전 미국에 동성결혼 가속화 될 듯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에 관한 하급법원들로부터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이곳 주정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상태로, 인디애나 등 5개 주는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였으며, 콜로라도 등 6개 주는 상고를 고려 중이었다. 연방대법원은 5개 주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것이며 이에 따라 5개 주는 즉각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고 6개 주는 상고해 봐야 아무 소송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6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관한 하급법원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 11개 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앞으로도 주정부 차원의 동성결혼 문제는 연방지방법원을 거쳐 최대 항소법원까지만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은 여러 주에서 정부와 동성결혼자들 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에 효율성 면에서 아예 심리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미국의 민주적 법 절차에 대해 판결하는 것에 연방대법원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실 연방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연방대법원은 연방결혼보호법을 위한 판결하면서도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인 프로포지션8에 대한 심리는 기각했다. 정치인들에 의해 제정된 결혼보호법은 위헌이라 말할 수 있었지만 주민의 52.5%가 찬성해서 제정된 법을 위헌이라고 폐기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소송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주정부가 일찌감치 소송을 포기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나섰고 연방대법원은 이 주민들이 주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사실상 동성결혼의 '내용'이나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의 결혼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하급법원에서 올라오는 상고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타는 주민 66%, 오클라호마는 주민 76%, 버지니아는 주민 57% 등 모두 과반수 이상 주민의 지지를 얻어 제정된 법이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다.

여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로 인한 소송은 다루지 않고 하급법원에 맡기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 볼 때 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난 9월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는 연방지방법원의 마틴 펠드만 판사가 동성결혼 금지법을 합헌 판결한 바 있다. 펠드만 판사는 "결혼에 대한 규정은 각 주와 민주적 절차에 맡겨져 있다"면서 "법원은 지난 수천년 역사 동안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의 의미'가, 헌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지만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옹호한다면, 루이지애나 주는 연방대법원에 가지 않고도 동성결혼 금지법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 김준형 기자



남침례회 소속 남가주한인교회 지방회 정기총회가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 남침례회 남가주지방회 "빛의 사명 감당하자"

100개 교회 200명 목회자 이끌 신임회장에 김영하 목사 선출

남침례회(SBC) 남가주한인교회 지방회 정기총회가 10월 6일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김영하 목사가 선출됐다.

이 지방회는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 소속돼 있으며 남가주 및 네바다 지역에 있는 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의 화합과 연합,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다. 명칭은 지방회이지만 산하에 100개 교회와 200여 목회자가 등록되어 있어 그 규모와 사업

면에서 상당하다.

이번 제34차 총회에서는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가 회장, 이희성 목사(크로스포인트교회)가 부회장, 서병관 목사(터스틴제일침례교회)가 총무, 박영호 목사(미주에담교회)가 서기, 민승배 목사(조은교회)가 회계, 황 여호수 목사(미주두란노교회)와 박경호 목사(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부목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또 지방회 규약 수정을 위한 위원으로 이호영 목사(씨월드침례교회, 직전회장)와 한충호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를 임명했다.

지방회의 실무를 책임질 분과마다, 목회지원부에 정성오 목사(보니타침례교회), 선교지원부에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교회), 홍보전교부에 장재영 목사(웨스트LA마교대교회)가 선출됐다.

→ 3면에 계속

### JAMA 대표에 강순영 목사, 이사장에 김춘근 교수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JAMA의 대표로 강순영 목사가 취임한다. 21년 전 창립된 JAMA는 한인 2세들을 미국의 영적 리더이자 주인으로 세우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강순영 목사는 21년 전 현 대표 김춘근 교수와 함께 JAMA를 시작해 총무, 부대표 등 다양한 타이틀을 지녔으나 사실상 김 교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동역자이며 친구다. 김 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함께 현장에서 뛰면서 이루어 왔고 김 교수가 긴 투병생활을 할 때에는 김 교수의 뒷까지 도맡아 JAMA의 사역을 발전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의 대각성을 부르짖던 김 교수는 차세대 교육에도 큰 소명을 받아 GLDI(Global Leader-

ship Development Institute)를 시작했으며 이를 기초로 4년제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LDI는 성령충만한 차세대 리더를 40일간 합숙훈련하며 기독교 세계관과 비전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 교수는 대표직을 물려주고 이사장에 취임해 이 사역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학은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 3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일요총회 회당에서 기독교 예배를 본편 '무신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일요총회

# '하나님 없는 교회' 전 세계에 35개 회당 생겨

## 예배 형식 빌린 무신론 집회 빠른 속도로 확산 중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놀라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한지 2년 만에 35개의 회당을 거느리는 규모로 발전했다고 이 단체측은 밝혔다.

일요총회(Sunday Assembly)는 무신론 단체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대신 무신론 신념을 확인하는 모임을 매 주일 열고 있다. 각 35개 회당에는 보통 60-80명의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년 안으로 11개 회당이 더 세워질 예정이라고 일요총회 측은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초 런던에 첫 회당을 세운 데 이어 8개월여 만에

영국 전역 20개 도시에 지역 회당을 개척했으며, 이 해 말부터 유럽과 미국에도 '개척'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테네시 주에 처음으로 회당이 세워졌으며, 당시 설립 3개월 만에 인원이 두 배나 증가하면서 무신론 집회 횟수도 일주일에 두 번으로 확대했다.

일요총회는 영국의 무신론자 코미디언 샌더슨 존스가 창립했다. 그는 단체의 목적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모여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삶의 경이로움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는 앞서 CNN 등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1천 개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일요총회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무신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과 흡사하게 자신들의 단체의 사상에 따라 교육하는 무료 학교를 세울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일부 회당에서는 이미 데이케어와 제공하고 있으며, 비슷한 서비스를 뉴욕과 샌디에고 등 다른 도시들의 회당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손현정 기자

# 캘리포니아 차터스쿨 도서관 내 기독교 서적 제거

캘리포니아의 한 퍼블릭 차터 스쿨이 "학교 도서관에 특정 종교의 자료를 비치할 수 없다"면서 모든 기독교 서적을 금지했다. 테메큘라에 위치한 스프링스차터스쿨은 기독교 작가의 책이나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모두 제거했다. 이 가운데에는 코리 텐 북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The Hiding Place)'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 학부모의 항의로 알려졌다.

이 지역 교육감은 "종교적인 자료는 학교와 맞지 않다"고 학교 측을 옹호했다. 그는 "주에서 허가한 도서관 책장에 종교적인 책을 비치하지 않는다, 구매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PJI)는 학교 측에 금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이번 조치가 개인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교육구는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트리스 유니온 프리 대 피코 사건은 학교가 특정 책을 장서 목록에서 제거하자 학생들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낸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은 "교

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질스러운 책, 부적절한 책은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책 안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치, 국가관, 종교 등 분야에서 자기 주장을 확립하고자 그 책을 제외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태평양법률협회 브래드 다커스(Brad Dacus) 회장은 "학교 당국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설교와 연설도 금지하지 않겠는가?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주장한 독립선언문은 어떠한가?"라면서 "스프링스차터스쿨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인식과 불법적인 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떠나고 싶어요"

## 바그다드 성직자, 현지 기독교 종말 우려

이슬람국가(IS)의 세력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라크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다고 현지의 성직자가 전했다. 이라크의 유일한 성공회교회인 세인트조지처치의 앤드류 화이트 주교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이라크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교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라크에는 정말로 머지 않아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라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두가 떠나고 없고, 남아 있는 이들도 가난으로 인해 떠나지 못했을 뿐 기회만 된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라크에서는 2천 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이라크 교인들이 속한 칼데아 정교회는 가장 역사가 깊은 교파 중 하나다. 이라크 교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지속되었던 온 정국 불안정 속에서도 조상들 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 온 땅을 떠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래로 이슬람국가(IS)가 모술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가며 이라크 전역에서 세를 떨치고 있고, 비무슬림들에 대한 극단적인 박해를 가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라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었다. 화이트 주교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너무나 슬프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이라크 기독교의 2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가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많은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제기

해 왔다. 니스웨 지역의 대표적 가톨릭교회 지도자인 나와르 신부는 이미 지난 8월 "이라크에서 기독교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IS는 점거 지역 내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종교인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인두세 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교인들에게는 폭력과 강간, 살해 등의 잔혹한 박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수만명에 달하는 종교적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비교적 안전한 쿠르드 자치 지역 또는 최근 국경을 개방한 터키로 피신했다.

그러나 임시 피난처에서의 생활 역시 언제 테러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각종 식량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의 연속이다. 월드비전 이라크 담당자로 에르빌 지역에서 피난민들을 돕고 있는 케스린 태츠쉬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물, 대피소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비롯해 학교나 지역 센터 그리고 채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들에서까지 생활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마저도 없어서 밖에서 먹고 자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높은 여름 기온과 수용 인원 초과, 그리고 위생 시설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화이트 주교는 세계의 교인들에게 이라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간절히 전하는 소식"이라며, "이곳의 교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나라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인근 국가의 형제 자매들 역시 IS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리더를 위한  
**통큰통독 활용세미나**

하나님나라와 소통하는 성경읽기인 90일 통큰통독의 목회적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해홍 목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전체를 조망하는 40시간 강의>와 소그룹나눔 그리고 실제적 운영방법강의 및 사례발표로 진행됩니다.

**강사 |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 저자,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강사 / 저자 주해홍 목사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전공  
보스톤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Pacific Christian College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현 International Hope University)  
경력 / ANC 온누리교회  
성경대학에서 성경지도  
25년간 주정부 감사관으로 근무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강의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통큰통독학교의 특징**

1.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읽게 합니다.
2. 연대순으로 재정리해서 통독하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읽기표와 읽기짹, 해설, 오디오 CD의 도움으로 90일 통독이 가능합니다.
4. 교회별로 통큰통독 소그룹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통큰통독입니다.

**대상**  
성경일독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리더 (단, 평신도 리더일 경우 담임목사 추천서 필요)

**일정** 2014년 10월 20일(월) - 23일(목)  
월/오후 1시-9시, 화-목/오전 10시-저녁 9시

**장소** 남가주 성시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등록비** \$150 / 식사 제공. 단, 숙박을 원하시는 경우 1박에 \$60 (1인실 기준, 2인실의 경우는 \$30)의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등록인원** 선착순 100명  
교재 / 주해홍 목사의 <통큰통독> (별도 구매). 참석자들에게는 주해홍 목사의 강의 CD와 인도자를 위한 도표, PPT강의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두란노서원 세미나팀  
213 235 1068  
seminar@duranno.us

후원 : 미주두란노서원, 미주복음방송, CGNTV  
오렌지카운티목사회, 기독교일보

미주두란노 세미나팀

### JAMA 미국 부흥 위해 전국 순회 기도회 예정



강순영 목사

→1면으로 부터 계속 강순영 목사는 JAMA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 리더십 포럼 등 미국의

부흥을 위한 각종 사역을 계속 이어 가면서 미 전역을 순회하며 미국의 대부흥을 부르짖는 교회연합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JAMA는 타 선교단체들과는 달리 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강 목사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9개 도시를 순회하며 미주 한인교회들을 깨우는 일에

나선다.

또, 강 목사는 그동안 1세 목회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던 TLF(Total Leadership Forum) 사역을, 1.5세, 2세 목회자들에게도 확대해 2세들을 목회 멘토링하고 섬기는 GLF(Global Leadership Forum) 사역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취임예배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김준형 기자

### 교회 부흥과 갱신 운동에 앞장설 것 약속

#### SBC 남가주한인교회 지방회장 김영하 목사



김영하 목사

→1면으로부터 계속 회장 김영하 목사는 “저는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꿈꾸고 있다. 세인들에게 교회는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빛된 사명을 주님께 부여받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은 개교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교회 연합체가 지속적으로 부흥과 갱신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각 교단이 모인 연합회는 각각의 색깔이 있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우리는 한 교단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부터 교회 부흥과 갱신 운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회에 관해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선후배 목회자들 사이에 서로 믿고 어깨준다. 지방회 소속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며 개척을 원하는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으로 남가주 지역의 모든 침례교회들이 활발히 협동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지방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가주는 한국에서 은퇴한 목회자들과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는

이들이 모두 서로의 지하고 정을 나누며 개교회를 돕고 목회의 아픔을 나누는 지방회의 풍토를 발전

시키겠다 말했다. 또 전임회장을 비롯한 선배 회장들의 선례를 잘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이 워낙 훌륭하셨기에 아파 제가 반만 일을 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도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원칙에 충실하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교회 갱신을 이루며 사회에 분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방회 활동뿐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충실하겠다”고 했다. 살롬교회는 김 목사가 10년 전 자택에서 개척해 치과 병원, 가구점 창고, 미국교회 등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세계선교전례교회와 지난 5월 연합해 크게 도약하고 있다. 문의) 714-280-5684 1681 W. Broadway, Anaheim, CA92802 김준형 기자

### “아메리칸 아이돌의 한희준, 작은 천사 더플리와 밀알의 밤”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이 올해도 열린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모금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을 후원해 왔다. 이 선교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65만8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행사에는 <Open Your Eyes>란 주제 아래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한희준,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초대됐다. 뉴욕 출신의 이민자 1.5세인 한희준

은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며 적극적으로 회복됐다. 그는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장애인 선교단체를 돕기 위해 대회에 출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3세인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코카인 중독자 어머니에게서 시력을 상실한 채 태어나 곧 버려졌고 자폐증까지 앓고 있다. 그러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17일(금) 오후 7:30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18일(토) 오후 7:00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19일(주일) 오후 7:00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10달러다.

밀알선교단은 “지속적인 불황으로 한인 동포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지만, 역시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보다 넉넉한 장학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657-400-9570

### 소망 소사이어티 연장자 사역 위한 거라지 세일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언서 작성 등 죽음 준비 교육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거라지 세일이 열렸다.

소망 소사이어티 연장자 사역 기금모금 행사인 제5차 소망나눔가게 거라지 세일이 지난 10월 4일 라팔마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 활동으로 250여 명의 손님이 방문했으며 옷, 가방, 의약품, 생활가전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

날 모금된 금액은 총 1080달러.

오전 7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고자 줄을 섰으며 이전과 달리 외국인들이 많았다. 특히 페니세이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물건 정리를 함께 돕기도 했다.

이날 방문한 라틴계 주민 루시 씨는 “지난해 소망나눔가게

를 통해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페니세이버에 ‘Sharing Hope Garage Sale-Somang Society’ 문구를 보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소망나눔가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죽음 준비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 새생명한인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한인교회 정철 담임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앨바인에 위치한 새생명한인교회가 10월 4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배재코랄을 초청한 가운데 사랑의 음악회를 마련했다. 배재코랄은 이날 가시나무새, I Love You Lord, 향수 등을 연주했으며 새생명성가

대, 베이스 정재혁, 카운터 테너 신하민 등이 특별 연주를 했다.

정철 담임목사는 “음악회를 통해 심령을 물댄 동산 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소현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리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대형마트에서 서부인사팀) T.213.453.6624 (이리왕마켓일구)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굿네이버스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 인터뷰]

#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

## 크리스천 간판 대신 크리스천의 향기 발해야

이민사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마동환 변호사. 현재는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USA의 이사장으로서 이민사회를 넘어 남미와 아프리카의 어린이에 대한 섬김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에게, 굿네이버스 활동은 가진 자의 자기과시나 허영이 아닌 이웃사랑의 자연스런 실천이다. 마 변호사는 ‘이웃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뜻한 동기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마 변호사를 만나, 굿네이버스와의 인연과 그간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 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굿네이버스와의 인연은 6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어느날 지도를 들고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야 할까 찾고 있는 이병희 국장과 오은주 대표 내외를 우연히 올림픽 길에서 만났다. 직원이 제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전해줬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굿네이버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좋은 취지의 기관인 것 같아 사무실 뒤 편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임시 사무실로 드렸다. 그분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지내셨다. 1년이 지나면서 굿네이버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이사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의가 왔다. 첫 임기 4년을 마쳤고 지금은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그는 굿네이버스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설립한 NGO라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수식어가 생각난다. 훌륭한 단체이며 토종 NGO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도 3월에 설립된, 20년이 넘는 한국 NGO다.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구호단체라는 자긍심과 투명한 기관이라는 데에 매료됐다. 구호단체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를 초월한 이웃 섬김  
크리스천 간판 아닌 향기 드러내야

또 그는 종교를 초월해 이웃을 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여러 기독교 구호단체가 있지만 굿네이버스가 종교를 초월한 단체라는 점이 참 와 닿았다. 크리스천이라는 간판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

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참 신앙이라 생각한다. 수혜자의 종교를 따지지 않고 종교를 초월해 이웃을 돕는 굿네이버스가 바로 이런 단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철저히 기독교로 시작해 기독교로 마치며 항상 말씀이 있다.”

“무슬림 국가에서 활동하다 보니 그곳의 현지 지부장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도 있다. 종교를 초월한 NGO로서 생각이 유연하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크리스천과 관계없는 것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멤버들은 크리스천이다.”

소셜 미디어 적극 활용할 터

그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굿네이버스 활동에도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며 NGO가 급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일명 ‘소셜 기부’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기부의 통로도 다양화 되는 추세다. 여러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을 접목해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사진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웃사랑의 수혜자는 ‘나’

굿네이버스 활동에 그는 어떤 원칙이나 철학으로 임하고 있을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제 원칙과 철학은 그리스도인의 원칙, 철학과 동일하다. 이웃을 돕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의 과시나 허영이 아니라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 그 실천의 수혜자는 사실 ‘나’이다.”

“한 예로, 고등학생들이 과테말라에 봉사 차 아궁이를 교체하러 떠날 때는 ‘나는 풍족한 사람이니 좋은 일을 하고 와야지’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본인이 ‘배곯았다’가 아니라 ‘배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일하는 저의 고백도 그들의 고백과 동일하다. 이사장으로 무슨 일을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배움과 영향이 더 크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돕

는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이민사회, 자기자신에게 관심 가져야

그는 이민사회가 바쁘고 메마르다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심을 가져달라. 각자 바쁜 삶을 돌아보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은 2차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고 메말랐다. 편지를 전해 주려면 말을 타고 가야 했던 때에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안했는데 클릭 한번으로 지구 반대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오히려 여유가 더 없다. 여유가 있어야 주위의 어려운 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민생활이 바쁘지만 좀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의 상식, 한국과 달라

그가 변호사가 된 것은, 법에 대한 무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이민자들에게 특히 많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을 떠난 법은 악법이고 언젠가 고쳐진다. 상식은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한국의 상식이 미국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법조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사명자다. 이러한 차이를 이민사회에 알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하게 됐다.”

그의 기억에 남는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근본적인 도움을 줬던 때다.

“소송의 승패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회복해 줬던 일이 더 크게 가슴에 남는다. 몇 년 전 제가 잘 아는 분이 이혼 문제로 오셨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이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였다. ‘잠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다. 2년 후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됐다. 이들 부부가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갔을 때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



마동환 변호사

전체 그림 통해 해결책 얻어야

클라이언트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사건의 단면만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내 상태를 먼저 알아보게 한 다음 처방을 기다리지 의사에게 ‘나 이거 처방해 주세요’하면 안 되듯 법적인 문제도 어떤 면에서 이와 많이 비슷하다. 전체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진짜 필요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면만 제시하며 답을 구한다.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절대 비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자기 상황과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없다. 변호사는 그 신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며, 모든 상황을 알았을 때 거기에 맞는 처방,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가 다를 때가 있듯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약환자가 원하는 게 뭐가. 마약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의 반대다. 법적인 문제로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을 잘 추스르지 못하면 원함과 필요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과테말라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아프리카는 아직 방문하지 못한 그는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개발하고 더 활성화 해 그곳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과테말라, 남미지역은 아직 미디어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 몇 년 사이에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스페인어를 배워 그들과 소통하고 싶은 바람이다.”

“굿네이버스USA도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념과 철학을 잘 알리고 훌륭한 이사진들을 보강해 일등 NGO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 주디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DK HEALTH INSURANCE, INC.

##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초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 고린도전서 2:6-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6절의 '온전한 자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추어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 시대의 관원들조차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유대인 관원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나 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 영감적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구약성경을 외우다시피하며,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조목조목 지적해 가면서 일곱 번이나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시키실 목적의 경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소망을 가꾸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귀로 들어 알아차릴 수 있는 곳도 아니며, 또 믿음으로 연구해서 짐작할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다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조건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되고 억울하고 괴로운 입장을 누군가를 붙들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걸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사정과 형편, 처지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억울하고 불행한 것을 당하는 원인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5-6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침상을 적시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습시다. 그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령한 소망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시게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며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간절해지면서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복종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16-17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했습니다. 이것은 본문 13절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함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이 제멋대로 떠드는 말인지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모으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

단사설이 너무나 난무하는 혼란한 시대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18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6-9에 "가라사대 이 사람이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했습니다.

이사야 29:13-14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여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르치는 말에 신앙인으로서 기대 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없애지게 만드셨고 명철과 총명이 가리워지게 만들어 버리셨습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어 쓰임받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생활은 세상적으로 기본 내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원수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계속 육에 속하여 살다가 지옥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이 생기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가지 일들로 기운 없고 힘들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속사역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悔改, repentance)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이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양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3: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무료 체험(온열 요법)

###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저리고 아프신분

- 발이 차고 시리며 저리신분
- 각종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신분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신분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분
-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시는분

주님이 주신 자연치유 요법으로 편안케 해 드립니다.

“예약하신분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2836w 8th # 106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1-7273, 213)605-2928  
미주 기독교 의료봉사 센터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본 사람은 필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 말씀을 적용해보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국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믿는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요일 3:17-18에서 말한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왜 우리가 행동과

물질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그렇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이다.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편견과 빼놓아진 생각, 인본주의 사상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말, 행동, 태도, 관계, 반응, 선택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책망하실 일이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은 물론, 뜻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바닥을 치고있다. 그건 외적 공격도 공격이지만, 교회 내, 즉 교인과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불우한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행동과 물질로 사랑하며, 더욱 남을 섬겨야겠다.

## 세대에서 세대로



이승필 목사  
새로운교회

값지고 소중한 가치들은 현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조차도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소중한 것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면 재빠른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이와 요단강을 기적으로 넘어왔으니 그 기세를 몰아 여기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나”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아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수4:21-22). 현재의 기적을 넘어 앞으로 가나안에서 지내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첫번째 여기고성 함락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념비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백성들의 용맹성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기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 삶에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업적의 기념비가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모난 돌들이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념비를 쌓아야 합니다. 매일 대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고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기념비는 부모의 업적이 아닌 신앙의 헌신과 순종입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지만 실제로는 자기 세대를 위한 과시욕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후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념비를 물려 주어야 합니다.

## 어둔 밤 쉬 되리니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단어나 말투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본다. 신기하다.

그러나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커가고 자라가고 늙어가고 마침내 천국가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란 본시 자기 자신의 변화는 잘 모르지만 양들이 변하는 모습은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성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삶과 신앙의 묘한 신비를 느낀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맡은 직분이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그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낳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한참 교회를 섬기던 장

년들이 늙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젊은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은 대부분 이미 천국으로 가셨다.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 그렇게 소년이 청년되고 청년이 장년되고 장년이 노년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인생의 여정들이 보인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맘미암아 그런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영원한 안식처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여정을 바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옛 성도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둔 밤 쉬 되리라 한 것처럼 청년도 잠시요 장년도 잠시요 노년은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인생의 유한함을 탄식하고만 있는 사람은 게으르고 약한 자이다. 어둔 밤 쉬 되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더 기뻐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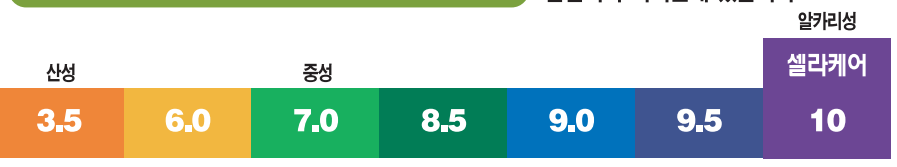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b>발작, 자폐증, 무감각증</b>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b>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b>
<b>대장암 말기</b>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b>원자력 피해</b>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b>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b>
<b>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b>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b>박옥현(77세)</b>
<b>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b>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b>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b>
<b>간질과 약물중독</b>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b>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b>
<b>직장암, 대장암 말기</b>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b>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b>
<b>심한 아토피</b>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b>
<b>대장암</b>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b>한국 010-7928-7986</b>
<b>비만, 우울증, 야노증</b>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b>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b>
<b>심한 당뇨, 고혈압</b>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b>오일동(52세, 가디나)</b>
<b>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b>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b>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b>
<b>심장병, 담석, 전립선</b>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b>마사루(58세, 부산)</b>
<b>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b>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b>
<b>중풍마비, 당뇨, 고혈압</b>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b>민현자(65세, 방배동)</b>
<b>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b>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b>박성섭(63세, CA 토렌스)</b>
<b>자폐증</b>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b>정대진(16세, 엘에이)</b>
<b>취장암 말기</b>	60세 중반에 가장 힘든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b>피터 리(65세, 엘에이)</b>
<b>폐암 말기</b>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b>이정수(51세, 서울)</b>
<b>자가 면역 질환</b>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속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b>미세스 팍(뉴저지)</b>
<b>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b>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b>이은영(32세, 세리토스)</b>
<b>혈액투석</b>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b>장영순(53세, 한국 서울)</b>
<b>중풍으로 인한 마비</b>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b>김정훈(76세, 한국 대구)</b>
<b>임파선암</b>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b>조인숙(53세, 시카고)</b>
<b>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b>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b>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b>
<b>전립선암과 부정맥</b>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b>필립 남(72세, 벨리)</b>
<b>파킨스 병</b>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b>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b>
<b>반신불수</b>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b>최정석(50세, 엘에이)</b>

### 건강과 성경 이야기 24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알렉산더대왕, 나폴레옹, 노벨, 모파상, 단테 등도 간질환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은 갑자기 환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사지가 뻗뻗해지며, 호흡장애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이르며, 의식을 찾으면 환자는 전신통이나 두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톡톡 치는 것 등에서부터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의 일부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손발이 저릿 저릿거리거나, 따끔거리거나, 의복을 만지작거리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증상도 초기 간질의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질의 원인은 대뇌의 피질이 이상이 생겨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며, 선천성 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 퇴행성 질환,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항경련제와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수술을 받았다가 자칫 뇌가 손상되면 더욱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 본 후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는 구절이 나와있고 또한 심일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있는 기록서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일조로 가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리는 방법으로는 가족을 한 줄로 세워놓고 좁은 곳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며 숫자를 세다가 열번째로 지목되는 가족을 심일조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열번째로 지

나가게 하는 가족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일부터 지나가게 만들어 심일조를 드렸다는 형식에만 의존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도 있고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도 있는 기록서입니다. 말라기1장8절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회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13절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페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해낸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축복의 말씀은 3장10절부터12절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참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심일조의 목적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명령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럼 크고 작은 간질질환의 치료방법을 말씀 드린다면, 술을 마신 다거나, 수면부족, 과식이나 변비, 스트레스로 인해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이것들을 자제하시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피가 영양이 부족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므로 한 일주일 후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종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b>동부총판</b>	<b>201.983.8333</b>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b>하와이 총판</b>	808.359.337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마사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플로리다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 교회교육, 삶에서 기독교적 가치 실천하도록 도와야

## 교회교육엑스포 2014, '기본으로 승부하라' 주제로 이틀간 진행



교회교육 문제를 다루는 엑스포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교회교육엑스포 2014가 '기본으로 승부하라(Back to the Basic)' 주제로 6-7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담임 김삼환 목사) 글로리아센터에서 개막했다.

엑스포 첫날인 6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김삼환 목사의 주제강의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승부하라', 선택강의로 교회교육 전문가들의 베스트 체험강의와 이슈 컨퍼런스 및 패널토의, 이슈 체험강의 등이 진행됐다. 글로리아센터 1층에서는 교회교육 관련 기관들의 '부스 전시'도 마련됐다.

이들 중 조은하 교수(목원대)는 이슈 컨퍼런스Ⅱ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창조적 교회교육 원리'에 대해 강연했다. 조 교수는 '이제 교회학교 부흥은 불가능하다? 절대 연령 감소, 출산율 감소에 따라 교회학교 감소도 자연스럽게 여겨야 하는가? 새로운 세대의 교회학교 부흥 전략은?' 등의 질문에 답했다.

조은하 교수는 먼저 오늘날 교회교육이 정체성과 수적 감소, 질적 면 등 세 가지 면에서 위기를 겪

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21세기 들어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독교교육 현장에서도 미래세대와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해졌다"며 "교회교육이 현재 위기를 미래의 창조적 도약으로 삼으려면, 변화하는 미래의 동향, 미래세대를 위한 마인드, 미래교육의 설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변화하는 미래의 새로운 동향으로 '하이 콘셉트, 하이 터치 시대'를 꼽았다. 이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주장한 것으로, 다음 세대는 디자인과 스토리, 조화와 공감, 놀이와 의미를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 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상호 작용과 통합을 이끌어, 교회에서도 작고 친밀한 조직이 각광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시대의 교육방식으로는 단순한 지식정보 전달을 넘어, 사고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조은하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문화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와 교사 역할을 요구한다"며

교회교육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렉스 밀러가 <밀레니엄 매트릭스>에서 주장한 8가지를 소개했다. ①민첩성 ②투명성과 진정성 ③결합과 균형 ④복원력과 리더십 ⑤지속 가능성 ⑥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개방성 ⑦접근 용이성 ⑧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 등이 그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토대로 '미래(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적 교회교육의 기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 갈 기독교 지도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위한 지도자의 속성과 능력은 ①주도자의 모습에서 촉진자·지지자로서의 지도자 ②지속성과 상황의 창조자 ③협력하는 지도자 ④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등으로, 지도자의 권위와 의미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사역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 기인한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자 교육과정의 전반적 속고 및 교육과정의 새로운 설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참여와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성 회복'이다. 조 교수는 "교회 공동체는 참여와 경험, 소통과 관계, 가치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언약'에 관한 존재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약 공동체로 서기 위해선 다양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목적 위주의 모임과 프로그램 구조를 좀 더 가족적 모임과 상호교류가 일어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약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 친밀한 관계, 함께하는 시간, 관계

적 상호 책임성이 이뤄지는 공동체"라며 "이는 투명성과 진리가 확보되는 기초"라고 전했다.

셋째로 '문화와 영성을 아우르는 예배의 설계'가 요구된다. 체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세대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시각적·상징적·예전적 유산을 찾아내 다시 의미를 살려내고 21세기 오늘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이러한 '이머징 워십'은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와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영적 가치와 신앙적 경험들을 원초적으로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예배의 만남으로 주목받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육과정 설계'이다. 조 교수는 "소통과 공감, 배려와 돌봄과 연민 등의 가치들이 교육과정 속에 새롭게 인식되고 실행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학습도 과정과 경험 중심에서 상황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협력적 학습 공동체'를 창조해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 능력이 함양하도록 돕고, 교육공간 구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은하 교수는 "교회의 교육적 활동은 영적이면서 사회적으로, 학습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는 다양한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구조 변동을 초래할 텐데, 이는 기독교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신학적·교육학적·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독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의 강연 후에는 신경민 목사(명성교회 교육목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서영석 목사(한국어린이전도협회) 등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앞서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컨퍼런스Ⅰ에서 '우리 자녀를 (일반학교·미션스쿨·대안학교 중)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발제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장상 박사(전 이화여대 총장)의 '하나님의 학교' 주제강의 후 이영숙 교수(건양대·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가 '세대간 통합예배의 성공적 모험', 김도일 교수(장신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과 예배'를 이슈 컨퍼런스에서 각각 발제했다.

교회교육엑스포 2014를 주최한 김삼환 목사는 "올해 엑스포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미래를 살리는 해법을 신앙의 기본에서 찾아보려 한다"며 "과거 교회학교 부흥에서는 미디어나 콘텐츠가 아닌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었고,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 헌신과 봉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웅기자

##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취임 후 첫 임원회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6일 오전 이영훈 대표회장 취임 후 첫 임원회를 개최했다. 한기총은 이날 윤덕남 목사에 대한 총무 임명을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한기총 미복귀를 이유로 유보하고, 기침 교단이 복귀하는 대로 정식 총무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기총은 얼마 전 홍재철 대표회장 재임 시절 윤덕남 목사를 총무서리에 임명하면서, 그의 소속 교단인 기침의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었다.

한기총 복귀 의사를 밝힌 (사)한국외환선교회(상임회장 이광선 목사)와 제명 철회를 요청한 대만에

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회장 윤선중 목사), 탈퇴를 표명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용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등 회원교단 가입 및 탈퇴 승인 건은 질서확립위원회(위원장 정학재 목사)에게 위임했다.

특히 예하성의 경우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과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직을 역임하고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신앙적으로 합계할 수 없다"며 탈퇴를 청원했으나, 한기총 측은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기로 했

다. 이영훈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모 일간지에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의 리더십"이라는 글이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로 했고, 또 방송사가 홍재철 전 대표회장이 이단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종교·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며 꼭 참석해 달라고 독촉하기에 갔었던 것"이라며 질서위를 통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검토

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이사 29인 중 임기가 만료된 14인에 대해서는 대표회장 과 실무자들에게 위임해 처리하도록 했고, 안산 재래시장을 10일(금) 오후 2시 30분 방문하는 등 지속적 으로 방문해 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으며, 신임 교단장 취임 축하예배 일정은 한기총 증경회 장들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영훈 대표회장은 시종 단호하게 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임원회는 상견례적 의미이며, 앞으로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려 한다"며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기총 재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권리를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위 보고 건이 언급되자 "저에게 먼저 보고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날 개회예배에서 열왕기상 6장 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전 속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듯, 우리의 모임에는 거룩한 찬양과 감사만 있을 뿐 세속적 소리가 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영훈 대표회장 등은 이날 임원회에 앞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류재광기자

# CD, DVD 가을 할인행사 10월 31일 까지

믿음의 기업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미디어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가을의 문턱에서 할인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전도용 설교시디 프린팅 \$ 0.25

■ 강해설교, 시리즈 설교 및 신학교 세미나용 오디오북 제작

■ 찬양시디 앨범 (개인음반, 성가대, 찬양팀) 1set \$1.25

■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교회홍보 시디 및 DVD제작

■ 음악회 패키지 !!!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초청장, 티켓, 팸플렛, 포스터, 배너, 플라카트, 시디앨범)

■ 카세트, 비디오 테입을 CD, DVD로 변환해 드립니다.

Blank CD \$ 0.14

Blank DVD \$ 0.17

★ 배너 및 각종 사인, 인쇄 등 교회 미디어 사역 전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다음 세대 위해서도 목양장로사역은 꼭 필요

장로는 이민교회의 큰 자원, 목양에 동원돼야



장로를 목양에 헌신하게 하는 목양장로 컨퍼런스가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장로의 본질 회복 프로젝트 '제 21차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진행됐다.

30일(화) 오후 2시, '시대적 사명으로 미래를 보는 지도자'란 제목으로 컨퍼런스의 포문을 연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국제목양사역원 원장)는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탐방한 경험 토대로 현 시대 교회의 현실을 진단한 뒤, 목양장로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무엇보다 목양장로사역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장로상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차세대'를 위한 포석으로 '또한' 성경적인 장로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목양사역'을 제목으로 흥민기 목사(호산나교회 담임)는 12살에 이민과 목회자의 아들로 겪었던 이민교회의 현실과 영어권 목회자로 겪었던 이민교회의 상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풀어냈고,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인교회들의 현금과 헌신, 사랑으로 키운 많은 아이들이 미국교회에 가 있는 것을 본다. 왜 미국교회에 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교회 리더십 간의 불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한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나? 또 1세대, 2세대도 어엿한 장년으로 성장해 교회 리더십으로도 세워지고 사역해야 하는데, 영어권에서 30대만 되도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데 반해, 40대, 혹은 50대도 있는 영어권은 언제나 '아이들'이라고 불린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장래는 2세대에게 있음을 인지하

셔야 한다." "목양장로사역을 통해 장로들이 목양의 현장에 나가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고, 기도해 주며, 이들의 사정을 목회자에게 연결해 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나눈 흥목사는 "사역을 하며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거나, 여러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겪는 남성 가정들에는 교회에서 자라 사회생활을 거의 해보지 못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부목사들의 이야기보다는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장로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 목양은 교회 장로가 살아나는 프로젝트이면서 목사가 힘을 얻는 일이다. 쓸데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목사와 장로가 파트너십으로 성도들을 돌보는데 힘쓰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세대들도 리더십을 신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교회에서도 목양장로들이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돈과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그리고 만남에는 '목적'이 없어야 한다. 뭔가를 꼭 가르쳐야 한다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라. 이런 만남이 쌓여야 청소년들이 마음도 열고 교회 어른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생길게 된다. 그냥 가서 함께 있어보라. 더 이상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잡아야 교회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목양장로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교회 장로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이다. 이들을 목양의 일에 쓰지 않으면 큰 낭비다."

컨퍼런스는 '제자훈련과 목양장로사역', '목양사역 교회 이야기', '목사의 독특한 위치와 권위' 등의 강의로 이어져 지역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이면서도 새로운 도움과 도전을 줬다. 박현희 기자

PGM 호성기 목사 "다이스포라 시대,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

시애틀 온누리교회 가을 부흥성회 개최



PGM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 필라디오피아교회)를 강사로 가을 사경회를 개최했다.

호성기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전 4:20)란 주제로 다섯 번의 설교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설교했다.

특히 그는 "다이스포라(흠어진 씨앗) 시대, 선교의 제 4물결"에 대해 강조하며 "세계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때에, 흠어진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목사는 "해의 한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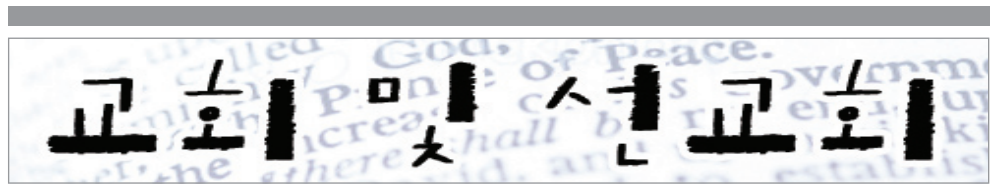
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흠어진 복음의 씨앗인 '다이스포라'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전 세계 175개국에 흠어져 있는 8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 동력화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 목사는 "평신도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대를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표현한다"며 "우리 주변의 무슬림, 라티노, 미전도 종족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했다.

호 목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선교지에 가야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와 있다"며 "기독교 선교전략이 바뀌어야 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흠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된 전문인 평신도들이 자신의 기술, 지식과 은사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한다"며 "선교는 더 이상 목회자들의 고유 영역이 아니며, 팀 선교를 통한 전문인 선교 또는 자비량 선교로 전 성도의 선교사역을 이뤄야 할 때"라며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웠다.

김 브라이언 기자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251 W.6th St., LA, CA 9002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저녁 오후 7:30
978 S. Hoover St.#203 LA 90006

나성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67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김종호 담임목사 에향선교회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22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예배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애투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우-수-목)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남)

**최호준**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0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월-금) 오전 05:30  
12631 E. Imperial Highwa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 뉴저지에 세워진 '이레교회'의 특별한 신앙선언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교회



뉴저지 이레교회 창립 및 교단가입 감사예배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이레교회(담임 김영철 목사)의 교회 창립 및 교단가입 감사예배가 5일 오후 5시 뉴저지 리틀폴 지역 이레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이레교회는 기존에 속했던 교단의 동성애 관련 정책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개척교회로 최근 KPCA 교단 가입을 마친 후 40여 명의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날 교회 창립 및 교단가입 감사예배는 김영철 목사의 사회로 고창주 목사(예수사랑교회) 기도, Sam Lee 특주, 김창길 목사(개신교수도원수도회 원장) 말씀, 김홍재 목사(KPCA 뉴저지노회장) 축사, 정철 목사(예인교회) 권면, 김형남 장로 봉헌찬양, 정수일 목사(새솔교회) 봉헌기도, 이기백 목사(뉴저지반석교회) 축도, 이우민 목사(리틀폴감리교회)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레교회는 기존에 속했던 교단의 동성애 관련 정책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개척교회로 최근 KPCA 교단 가입을 마친 후 40여 명의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날 교회 창립 및 교단가입 감사예배는 김영철 목사의 사회로 고창주 목사(예수사랑교회) 기도, Sam Lee 특주, 김창길 목사(개신교수도원수도회 원장) 말씀, 김홍재 목사(KPCA 뉴저지노회장) 축사, 정철 목사(예인교회) 권면, 김형남 장로 봉헌찬양, 정수일 목사(새솔교회) 봉헌기도, 이기백 목사(뉴저지반석교회) 축도, 이우민 목사(리틀폴감리교회)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레교회는 기존에 속했던 교단의 동성애 관련 정책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개척교회로 최근 KPCA 교단 가입을 마친 후 40여 명의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이영훈 목사 초청 준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소속 동북부지방회 회원들이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 준비기도회 겸 부부동반 수련회를 가졌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이만호 목사) 소속 동북부지방회가 노동절 연휴인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Honor's Haven Resort에서 1박2일 동안 부부동반 수련회를 진행했다.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이영훈 목사 초청 대뉴욕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 겸 개최된 이번 부부동반 수련회에는 총32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에는 문중호 목사(뉴저지주안교회)의 찬양 인도와 김면진 목사(순복음보스톤교회)의 기도 이후 지방회장 박현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23)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 쌀쌀한 날씨에 향긋한 차와 함께 한 밀알 일일차집



애틀랜타 밀알선교단의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이 열렸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 지난 토요일(4일), 애틀랜타 밀알선교단(단장 최재우 목사) 일일차집이 열렸다.

그간 후원해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밀알을 알리고자 매년 열리는 일일차집은 봉사자들과 밀알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향긋한 차와

'어머니 손맛'의 음식 바자회로 인기가 높다. 특별히 이날에는 연합장로교회 아마추어 현악기 선교단에서 방문해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김석균 선교사를 초청한 '밀알의 밤'을 22일 성기는교회, 24일 새교회에서 개최한다. 박현희 기자

청소년 연합부흥집회 <The Born Identity>

J-Gen 황준식 목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성령교회에서 청소년 연합부흥집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부흥집회가 주성령교회(담임 김영복 목사)에서 지난 주말(3-5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The Born Identity'를 주제로 3일간 총 다섯 번의 집회로 지역 청소년들을 '들었다 놔다'했던 주인공은 바로 시카고 뉴라이프커버넌트교회 황준식 목사. 15세로 차세대 한인 2세 지도자 양성을 목회 비전으로 J-Gen(Joshua Generation) 사역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그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답게 매 집회마다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춰 재치있는 입담을 발휘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빠지는 메시지를 전해 청소년 시기 꼭 고민해 봐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과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토요일 저녁 7시, 주성령교회를 가득 채운 지역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들이 이끈 찬양을 통해 은혜를 흠뻑 받고 황준식 목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정체성과 생명을 갖게

된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순결하거나 거룩해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이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황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분향(하나님 나라이) 아닌 타향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시켜 주시길 매 집회마다 열정을 다했고, 청소년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부흥'의 불꽃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됐다.

박현희 기자

KPCA 퍼시픽노회, "본질 회복하고 교회 부흥과 선교에 힘쓸 것"

제 2회 정기노회 웨드럴웨이선교회에서 열려



해외한인장로회 퍼시픽노회 정기노회에서 회원들이 기념촬영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퍼시픽노회 제 2회 정기 노회가 지난 2일부터 양일간 워싱턴주 웨드럴웨이선교회(담임 박연담 목사)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에서는 웨드럴웨이선교회 원로목사인 송천호 목사가 "천국민의 사고 의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회원들은 박연담 목사의 집례로 성찬에 참여했다.

개회예배에서 송천호 목사는 "천국민의 사고는 힘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며 "퍼시픽노회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이후 회무를 통해 신임 노회장으로 김상복 목사(산호세 초대영광교회)를 선출하고, 서기에 양종관 목사(울네이션스교회), 회록 서기에 김천용 목사(하와이

영락교회), 회계에 김남섭 장로(한빛교회)를 선임했다.

신임노회장 김상복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교회 부흥을 돕고 선교에 힘을 실어주는 '노회 기능의 본질'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퍼시픽노회는 소속 교회에 노회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적 투명함을 유지하고,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노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퍼시픽노회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풀러튼에서 열렸던 KPCA 총회에서 분립노회로 인준을 받고 지난 6월 30일 노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관할 지역으로는 서북미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교회와 1개의 선교 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서임중 목사 초청 연합부흥성회 개최한다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최인근 목사)는 올해 시애틀연합부흥성회를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를 강사로 오는 10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개최한다.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는 "오래 전 서임중 목사님께서 연합 부흥성회를 이끌었을 당시 시애틀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길 원한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에 시애틀 모든 지역 교회 성도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최인근 목사는 "서임중 목사님은 이 시



서임중 목사

대에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시애틀 교인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애틀 부흥의 주역들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말을 전했다.

서임중 목사는 시애틀연합부흥성회 이외에도 뉴욕 할렐루야대회, 시카고 할렐루야대회 등 미주 지역의 연합 집회들에 강사로 초청된 바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감사한인교회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남가주동신교회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허규암 담임목사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김민재 담임목사

권혁빈 담임목사, 엘버틴온누리교회, 최상준 담임목사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이승필 담임목사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영민민 담임목사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김철민 장로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셨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15. 만성피로나 허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목회자 아버지와 군부대 위문도 다녀요”

## 개그맨 정범균이 걷는 믿음의 길

무대에서 주님의 전도지 되게 해 달라 기도



서울 여의도 KBS 옆 한 카페에서 만난 개그맨 정범균 씨

요즘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는 개그맨 정범균 씨(28)는 잘 알려진 대로 크리스천이다.

지난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입사한 정 씨는 그간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독한 것들', '현대 레알 사전', '고조쇼' 등으로 이름을 알려왔고, 지금은 '연애능력평가' 코너에 출연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패널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한 시민을 침착하게 구해냈다는 뉴스로 화제를 모았고, 무명 시절부터 시작한 극동방송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클릭비전'을 소위 '똥' 후에도 계속 맡았다. 진분이 있던 유은성 전도사를 따라 놀러갔다가 얼떨결에 맡은 일이지만, 4-5년간 매주 월요일 밤을 책임졌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무언가이고, '하나님, 저 극동방송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라고 자랑도 할 수 있는 자리"라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 책임 같은 것들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양주 길벗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 특히 군 선교에 열심인 아버지와 함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군부대 교회를 찾아 간증을 나누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다. 입대 전에도 군부대로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던 그는, 힘든 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

"양구에서 일반병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시편과 신약성경

이 담긴 조그만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랬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힘들 때 읽으니 말씀이 훨씬 깊이가 왔습니다. 그때 일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대에 오르는 게 체질이지만 여전히 간증 자리만큼은 아직 조심스럽다고 한다. "가끔 스케줄이 맞으면 가지만, 무리하진 않습니다. 저 자신이 신앙적으로 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하실 때는 기도하고 따라가지만요(웃음). 멀리 목사님도 없는 군 부대에 맛있는 음식을 싸 들고 갑니다. 저도 군대에서 겪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부담없이 합니다."

개그콘서트는 1주일 내내 아이디어 회의와 연습이 계속되고, 틈틈이 개인적 일정까지 소화하다 보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정범균 씨는 '아버지로부터 배운대로' 주일예배와 심일조는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복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잘 하는 것도, 재능도 별로 없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효종이라는 친구를 대학교 때 만나서 함께 개그맨이 된 것만 봐도, 때에 맞게 좋은 분들 많이 붙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대신 고집 안 부리고 시키시면 다 하려고 합니다(웃음)."

그의 말처럼, 개그맨 최효종 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 정범균 씨를 개그맨의 길로 이끌었다. "저는 꿈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효종의 권유로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최효종 씨가 그를 이끌었다면, 그는 최효종 씨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 "제가 효종이 한 명 전도했습니다(웃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비교적 일찍 결혼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만나면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웃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내를 연신 칭찬했다. 여러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도, 그는 아내와 성경 5장씩은 꼭 읽고 잠자리에 든다. "피곤해서 성경을 읽지 못할 때는, 아내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정범균 씨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올라간다고 한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특정한 사람을 꼭 전도해야겠다는 것보다, 제가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박 코너를 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은 없어요. 다만 3분을 나가든, 몇 분을 나가든 주님의 도구로, 전도지로 사용돼 달라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개인적인 기도제목은 '장인 장모님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지만, 그는 '개콘'에서 자신의 코너가 없을 때라도 조금 해 하지 않는다. 대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한다. '보리떡과 물고기만으로도 오천 명을 먹이셨는데, 저 한 사람 굶기시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할 테니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면 딱 그만큼 허락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예요. 그리고 '개콘'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 감독님과 작가분들과 같이 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까지 과분한 칭찬을 들은 것 같습니다(웃음)."

이대웅 기자

# “삶과 노래의 간극 괴로워하며”

‘시인과 촌장’ 하덕규 교수의 음악 인생 이야기



하덕규 교수

1980년대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하덕규 교수(백석대)가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먼저 하 교수는 가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나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추어로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방송에 출연했고, PD 눈에 들어서 프로가수로 활동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대중가수로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하 교수는 "방송계가 나에게서 안 맞았다. 성공해야겠다는 부담은 컸는데,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런 하 교수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영화 '바운드 포 글로리'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다.

1982년 하 교수는 흑백TV로 미국 포크음악의 아버지인 우디 거스리의 일대기를 그린 '바운드 포 글로리'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 이 영화는 미국 경제공황기가 배경인데, 당시 미국에서 우디 거스리는 유명한 음악가였다. 하지만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버린 채 대공황으로 집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의 천막을 찾아다니며 콘서트를 열었고,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후에 유명한 음악가 밥 딜런도 우디 거스리를 정신적 아버지로 삼고, 흑인차별 및 전쟁 반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하 교수는 이 영화를 보고 출세하여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쾌락보다는 삶의 의미를 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뒤로 방송출연을 하지 않고, 들국화·함춘호·양희은·정태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미있는 음악을 하는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온 노래가 '사랑일기'다.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 사랑해 요라고 쓴다." 하 교수는 풍성한 감성으로 학생들에게 '사랑일기'를 불렀다.

하 교수는 이 노래를 쓰고, 당시 무명으로 대구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치던 함춘호를 만나 '시인과 촌장'을 결성했다. 명일동에 옥탑방을 얻어서 같이 밥 지어 먹으며 노래 연습을 했다. 그리고 1986년에 '사랑일기' 음반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대중가요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함춘호는 계속 대중가요계에서 활동해야 했기에 서로 헤어지게 됐다. 하 교수는 "함춘호 씨와는 지금도 종종 만나서 연주도 함께 하고, 작년에는 부산에서 함께 공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노래하는 것 만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생겼다. 하 교수는 "이기심, 야망, 미움 등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내 삶과 노래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힘든 시기에 내 안의 복잡한 심정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다. 당시 쓴 곡이 '가시나무'다. "내 숙연 내가 너무도 많아 / 당신의 쉼 곳 없네 /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 교수는 잔잔하게 '가시나무'를 불렀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 하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감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운동 자아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행복해지려는 이유도, 모두 자아성취 때문이다. 자아성취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자아성취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아성취보다는 오히려 자아부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여전히 이기적 성향을 가진 가시나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참 많이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성취해 간다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은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립되면 자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우리 안의 본성적인 것을 채워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다.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타적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태진 기자

# ◆ ATS 가입 감사 예배 및 후원의 밤 ◆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평소 대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4년 10월 1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주소 :**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 성 대 학 교**  
(구 미주성결대학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 제29회 성결포럼 ◆

한국의 교육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유석성 총장을 모시고 "평화"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평화  
"Peace: A Perspective of Dietrich Bonhoeffer"

**발제 :** 유석성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논찬 :**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0:30 am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기타 :** 발제 후 질의와 응답, 오찬과 교제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 목회학 박사과정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레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입학설명회

**날짜:**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30 - 12:00

**장소:** LA복음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Office: 323.641.0691 (영육구원)

담임: 이영성 목사

**문의:** 이효주목사 (973-713-3009)

### 입학원서마감일

**2015년 1월 입학:** 2014년 9월 1일까지

**2015년 5월 입학:** 2015년 2월 1일까지

### 입학조건

- M. Div. 학위나 Th. M.
- 각 학위 성적 (GPA) 3.25 이상 선호
- M. Div. 나 Th. M. 학위 취득 후 수년의 Full-Time 목회경력
- 본 과정은 한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00달러, 2014년 5월 기준 (3학기 동안 24학점 + 논문4학점)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http://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2)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II. 보편성을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1) 계시는 역사로서 주어진다  
2) 역사 의미는 종국에서 드러난다  
3) 신학의 두 가지 축: 보편사와 교회

III. 역사적 예수에서 출발하는 기독교론

1) 역사적 예수의 출현에서 시작 예수 부활 사건의 역사적 증명

판넨베르그는 1960년대 당시 신학계를 지배한 볼트만 학파와 바르트 학파에 의하여, 역사적으로는 오리무중에 있는 역사적 예수를 복권하려고 시도하였다. 볼트만 학파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와는 괴리 속에 있으며, 바르트 학파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은 사실적 역사와는 다른 차원의 초역사라는 항구 속에 도피해 있어서 역사적 예수와는 괴리가 있었다. 볼트만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는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순수 사실(das blosse Faktum) 외에는 불가지적 인물이었고, 바르트는 역사적 예수의 처녀 탄생을 인정했으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신문기자가 사진기로 찍을 수 없는 초역사적 사건이라는 표명으로 역사 비평학의 비평을 비켜갔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은 실존주의 신학과 말씀의 신학에서 역사적 근거를 상실할 위험성 속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넨베르그는 역사적 예수의 출현에서 그의 기독교론을 시작한다.

판넨베르그는 그의 저서 『예수: 하나님과 인간』(Jesus: God and Man)에서 '아래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론'을 전개한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수의 신성에서부터 출발하여 그의 인성으로 나아가는 바르트의 위로부터의 기독교론과는 달리, 역사적 예수의 출현과 초권능적 사역에서부터 출발하여 그의 신적 정체성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예수의 지상적 출현은 하나님 통치의 도래에 관한 그의 메시지에 의해 규정된다. 지상적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다(Pannenberg, Grundzüge der Christologie, 55-57).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숙명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규정된다. 그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판넨베르그는 인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희망의

설명을 그의 보편사적 논증과 연결시킨다. 이 역사적 논증은 기독교적 부활절 전승에 대한 역사적인 해명에 의해 부활을 철저히 "사실적(史實的) 사건"(historisches Ereignis)으로 파악하고자 한다(Pannenberg, Grundzüge der Christologie, 95).

판넨베르그는 볼트만이나 바르트와는 달리 예수의 죽음 후 현현, 그리고 빈 무덤의 사실을 이루는 제자들의 체험들이 역사적으로 명백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설명이 예수 부활을 바로 역사적 사실로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넨베르그는 볼트만 학파가 시도하는 것처럼 부활신앙을 하나의 모험 감행으로 축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1964년까지 판넨베르그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확정적 사실로 선포하려고 논증을 제시했다. 이러한 판넨베르그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복권은 1964년 튀빙엔의 그의 동료 볼트만이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기독교 신앙의 소망의 근거를 선언함으로써, 1960년대 현대신학은 역사적 예수의 복권으로 이어졌다. 판넨베르그의 예수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계시의 초점이다. 예수는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예기(豫期, prolepsis)다.

#### 2) 예수 - 포괄적 대속자

그러나 역사적 논구의 진행에 있어서 예수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증명 언급은 주목할 만하게 억제된다. 부활절 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증명은 완결되는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넨베르그에게 점차 명백해진다. 판넨베르그는 후기 조직신학의 맥락에서 그의 초기의 기독교론적 접근,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판넨베르그는 조직신학에서 세계 통합의 원리로서 고전적인 신학 개념인 로고스(Logos) 개념을 보편사 신학의 맥락에서 도입한다. 예수가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적 추상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의 세계질서를 반영한다. 말하자면, 예수는 인간 삶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야이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적합한 관계를 밝혀주는 분이다.

판넨베르그는 로고스 개념을 전개함에 있어서 바르트가 하는 것처럼 성육신 신학적으로 선제적 로고스와 인류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보편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사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전개한다. 말하자면, 예수 자신이 역사 속에 전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와 성부와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Pannenberg, Jesus, God and Man, 324-349). 예수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분으로서, 영원한 아들이며 로고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화해이다. 예수가 우리의 죽음의 상황을 자기이 짊어지심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대속자이다. 판넨베르그는 그의 이러한 관점을 포괄적 대속(inclusive substitution)이라고 부른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61).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져온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유한성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론적 접근은 계시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정통주의자에게서는 기독교 교의를 함리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사적인 접근은 판넨베르그 신학의 특징적 정향이다.

#### IV. 보편학문으로서의 신학 정립 시도

바르트가 신학을 교회의 학문으로 이해한 데 반해서, 판넨베르그는 신학을 보편학문으로 이해했다. 볼트만이 신학을 개인이 갖는 신앙 고백에 정초하려는 데 반해서, 판넨베르그는 신학을 역사적 이성에게 기초한 일반학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의 목적은 진리를 함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학은 역사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사의 지평에서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 그는 이렇게 '역사'를 신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역사로서 나타난 계시'를 강조한 신학자다. 계시

개념을 실존성이나 교회 영역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역사라는 지평으로 가져오려 하였다.

판넨베르그는 성경의 언어들을 현재에서 예견되는 미래의 희망에 대한 진술로 이해하고자 한다(Richard John Neuhaus, "Wolfhart Pannenberg: Profile of a Theologian," 56). 이 소망은 미래적인 것으로 다가오나, 결코 자기확증적이거나 자명한 진리가 아니다. 그는 볼트만이 소망의 낙관주의에 사로잡히는 데 대해서, 교회가 지니는 소망의 함리성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가 기획하는 이성의 신학이란 바로 교회가 지니는 소망의 함리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소망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판넨베르그는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삶의 경험에 의하여 지지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강화되고 예배의 송영 안에서 표현된다고 역설한다. 기독교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과의 사귀이며,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축연(祝宴)의 모험인 주의 만찬을 지금 축하하는 것이다. 판넨베르그는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며, 교회의 전체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판넨베르그는 기독교 진리의 함리성을 위하여 이성의 비판을 강조하는, 이성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신학의 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한다. 그는 신학이 일반 학문과 대화해야 한다는, 신학의 학문적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이성을 어디까지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 전체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편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교회의 신학자이다.

판넨베르그는 공공(公共) 영역의 사상가이다. 그는 기독교 진리의 보편적 타당성을 함리적 설명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시도한다. 신학은 사적(私的)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는 교회의 설교단과 대학의 교단(敎壇)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설교단과 강단 사이에 차이는 있다.

설교단은 제의적 회상, 축제, 공동체의 형성과 봉사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는 데 반해서, 교단은 공동체의 삶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 그러나 두 곳의 중심적인 추진력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구속사의 완성 안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역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 입증"이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12).

#### V. 미래 우위의 사상가: 종말론적 존재론

판넨베르그 신학의 핵심은 종말론적 존재론과 하나님 이해였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의 미래이자 완전성이며, 미래는 모든 현재에 대해 지배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를 규정하고 결정짓는다고 봤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성은 현재와 상충하기보다는 현재를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영을 통한 내재성은 피조세계의 풍성한 연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판넨베르그 신학은 교회의 경건성과 동시에 사회를 향한 봉사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교회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공공 영역의 신학자이다(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20세기의 신학』, IVP, 302). 그는 교회의 신앙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한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는 불가분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루터가 말한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단순히 교회의 본질적 모습과 경험적 모습 사이의 괴리(乖離)를 설명하는 역설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판넨베르그는 이것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이것을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한다. 첫째, 교회는 지금 선취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둘째, 존재는 항상 오는 것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가 현재 경험하는 역설적 실존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 개교회, 그리고 역사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에서만 그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하나님은 초월성은 그의 미래성이며 완전성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존 칼빈 성령의 신학자

김재성 | CLC | 512쪽

저자는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키며, 성경을 내적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시며,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임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존 칼빈의 성령론으로, 성령론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빛을 제시할 것이다.



#### 내 인생을 바꾼 31일 전도습관

이대희 | 브니엘 | 2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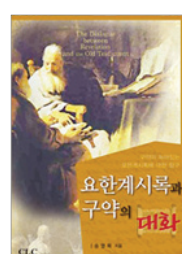
저자의 '...31일 기도 습관', '...31일 성경 통독'처럼, 이 책은 하루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묻어나도록 구성됐다. 한 달씩 1년간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전도법은 마음 열기, 대상자 찾기, 만남 갖기, 복음 전하기, 삶으로 전도하기, 초대하기, 양육하기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대화

송영목 | 기독교문서선교회 | 400쪽

요한계시록의 구약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다양한 해석학적 견해들과 함께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의 대화>를 펴냈던 저자는 '간 본문적(intertextual)' 연구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과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독자들에게 새로운 이해의 장을 제공한다.



#### 하나님 바보 2

전승호 | 터치북스 | 240쪽

애니메이션 감독인 저자가 삶 곳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성적인 그림과 글로 담아낸 작품. 첫 편에 이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의 과정들, 수많은 고민과 시련의 순간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자연스레 공감대가 이뤄진다.



## REVIEW

### '마지막 교부'의 물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기독교 고전 순례 27] 성 버나드의 '하나님의 사랑'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0-1153)는 1090년 프랑스 디용(Dijon) 근교 폰테인(Fontaines)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1112년, 그는 30명 이상의 동료들을 이끌고 시토(Citeaux)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1115년 클레르보(Clairvaux)에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 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는 생전에 72개소에 달하는 수도원들을 전 유럽에 창설하였고, 시토회에 속한 수도원들은 500여 곳에 이르렀다.

학문과 품성이 뛰어났던 그는 곧이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장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나드의 대표적 저술들 중 가장 훌륭한 부분들을 뽑아 특별히 평신도들을 위해 편집한 것이다. 즉, 버나드의 저작들의 정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저술과 설교에서 성경

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이유를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박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저서와 신앙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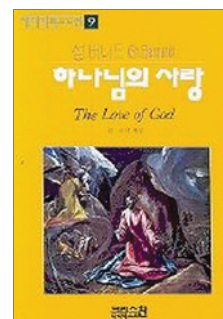
버나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모하고 진리를 목상하며 자비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버나드는 말하기를, "경건한 가운데 천상의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버나드에 따르면, 영적 생활에는 3단계가 있다. 초보자의 영혼과 성장 과정의 영혼과 성숙자의 영혼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단계는 동물적 단계다. 동물성은 감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의 형태다. 따라서 행복은 육체적 쾌락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이 동물적 상태는 거룩한 단순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2단계는 이성적 단계다. 영을 부여받은 인간은 그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하고 이성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한 영을 가진다. 이성적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

제3단계는 영적 단계다. 사람의 생각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물이 될 때, 의지는 그 자체가 사랑이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 혹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성 버나드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318쪽

힘을 베푸신다. 버나드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은 오직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다.

버나드는 우리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그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다. 얼마나 하나님

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의 원인이 되시며,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므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한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버나드의 불후의 명성은 그가 경건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버나드는 치열한 금욕주의로 인해 죽을 때까지 가장 엄격한 자아부정을 실천하였다. '마지막 교부'라고도 불리는 그의 글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사진: 김상동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결실의 계절 가을, '선교의 계절' 로 만들 신간 도서展

단기선교 후... 일터·학교에서 '선교' 관심 이어가기

단기선교의 계절이 끝나고, 청년들은 캠퍼스로, 직장인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선교한국 2014' 대회에서 주목받은 선교 신간들을 중심으로, 일터나 학교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이어갈 수 있는 도서들을 소개한다.

문화와 선교

손창남 | 조이선교회 | 256쪽



〈죽자비안 나이트〉, 〈직업과 선교〉 등으로 호평받은 저자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와 선교 간의 관계와 중요성을 다룬 많은 책들처럼 학문적 접근이 아닌, 실감나는 경험들을 통해 풍성하게 들려주고 있다. 저자는 선교훈련을 받은 후 1990년부터 회계학 교수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고, 2001년 한국으로 돌아와 7년간 OMF 대표를 지냈다.

1부는 '타문화의 이해'에 대해 다룬다. 문화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양식뿐 아니라 여러 개념과 가치, 신념과 세계관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좀 더 쉽게는 '게임의 룰'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전문과 중심주어나 성급한 판단 등 경계해야 하는 일들과 문화 충격, 오랜 시간 타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경험하는 '역(reverse)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등도 제시한다.

2-3부에서는 타문화에서 증거할 복음의 메시지와 선교사(메신저)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음 증거도 결국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성공하려면 메신저가 아닌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현지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화'에 있어 혼합주의를 피해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나아가 문화 변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물론 현지인들이 메신저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 부록으로 선교사의 최대 관건인 언어 습

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LAMP'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신 것처럼, 선교사도 타문화에서 성육신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며 "책을 통해 단일 문화권에서 주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글로벌 미션 핸드북

스티브 호크 · 빌 테일러 · 한철호  
NP | 388쪽



미국에서 지난 2009년 출간된 'Global Mission Handbook'을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한철호 선교사가 원 저자들과 협력, 한국교회에 맞게 '상황화'한 도서. 이를 위해 한정국·정민영·문상철 등 한국 선교 전문가 27인이 다양한 주제로 참여했다. 그래서 '핸드북'치고는 꽤 크고 두툼해졌지만, 타문화권 선교 준비에 있어 고려할 요소들이 빠짐없이 담겼다.

선교사를 꿈꾸는 이들이 선교사역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도록 '탐구하기-준비하기-시작하기'의 단계로 나누고, '개인 영성형성', '교육과 후원 모집', '선교사 실습 훈련' 등 10가지 큰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철호 선교사는 "선교 헌신자가 선교지로 나갈 것을 결심한 단계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부터,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적응하고 사역하는 일, 사역을 마친 후는 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에 여정을 떠날 수는 없고, 단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하는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전했다.

원저자인 스티브 호크와 빌 테일러는 "타문화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고, 특히 장기로 헌신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며 "이 길은 길고 꾸불꾸불하며 미지로 가는 순례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 바

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격려했다. 개인과 소그룹, 선교단체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레슬리 뉴비긴 | 아바서원 | 2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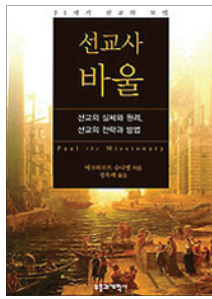


남인도 선교사이자 에큐메니칼 지도자로 〈교회란 무엇인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상 IVP)〉, 〈죄와 구원(복있는사람)〉, 〈타당한 확신(SFC)〉 등을 쓴, 20세기 최고의 선교사상가 중 한 사람인 저자가, 영국 홀리트리니티비블리언(HTB) 신학교에서 1994-1995년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엮었다.

저자는 책에서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등 갖가지 '선교적 도전'들에 대해 강력하게 변증한다. 이 책의 2부 '신앙과 교리'에서는 데카르트 이후 서구 사회가 의심과 과학에 의한 '객관성'이라는 신기루와 착각에 속고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와 별개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분법을 넘어 하나님님의 성육신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를 안내하고 있다. 3부에서는 죽어가는 문화에 복음적인 지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선교사 바울

에크하르트 슈나벨 | 부흥과개혁사  
664쪽



〈초대 기독교 선교〉로 잘 알려진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사 출신 톨런트 앨런이 귀국 후 바울의 선교방법에 대해 1912년 저술한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IVP)〉를 언급한다. 100년 전(1912

년) 나온 이 책에서 앨런은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방법과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할 목적으로 바울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한다. 당시 선교사들이 인종적·종교적 교만과 원주민의 독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저자는 "이 책은 모든 면에서 앨런의 저작을 갱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 있는 신학 본문들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읽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영향을 끼친 그리스-로마 세계의 실재에 더 정확하게 주목하자는 제안"이라며 "자신의 목회 및 선교 사역의 목표와 방법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비추어 평가해 보도록 촉구할 목적이 있다"고 썼다.

책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선교적 메시지 및 방법·목표, 바울 서신에 따른 선교적 과업 등을 분석한 후 21세기 선교 사역의 과제를 제시한다. 현대 문화와 교회의 특징들도 바울의 사례와 비교해 평가한다.

무슬림의 생활 지침서 하디스를 읽다

필 파살 | 조이선교회 | 3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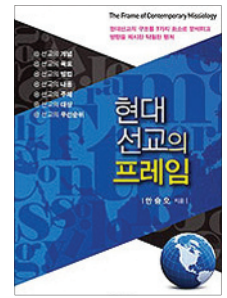


50여년간 아시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해 온 저자는 이슬람의 꾸란 외에 '하디스'에 주목한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수나)에 대한 기록인 이 하디스는, 제 목처럼 무슬림들의 '생활 지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상수훈'이나 교리서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꾸란과 마찬가지로, 무슬림에게 하디스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이는 무슬림 신앙의 '전제'로, 이를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알라를 모독한다고 여겨진다.

저자는 "무슬림에게 증거를 제시할 때 하디스 구절을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물론 민감하게 사용하고 결코 조롱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면서 "그러면 무슬림들은 매우 놀라며, 당신이 하디스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무슬림 사역을 꿈꾸는 이들 또는 국내에 부쩍 늘어난 무슬림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 이들이라면, 지피지기(知彼知己)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 흔치 않은, 하디스 관련 서적이다. SIM선교회 소속인 저자는 〈십자가와 초승달〉,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 등을 저술했다.

현대 선교의 프레임

안승오 | CLC | 264쪽



필리핀 선교사 출신으로 〈현대 선교학 개론〉, 〈현대선교의 핵심주제 8가지(이상 CLC)〉 등을 쓴 저자가, 현대선교의 구조를 7가지 요소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선교의 ①개념 ②목표 ③방법 ④내용 ⑤주제 ⑥대상 ⑦우선순위 등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설명한다. 저자는 선교의 방법만을 고민하던 이전과 달리, 1960년대부터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양화되면서 기본적인 사항마저 혼란이 발생해 효율적인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선교'의 이 같은 불명확성을 극복하고, 특히 한국교회의 역동성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선교의 기본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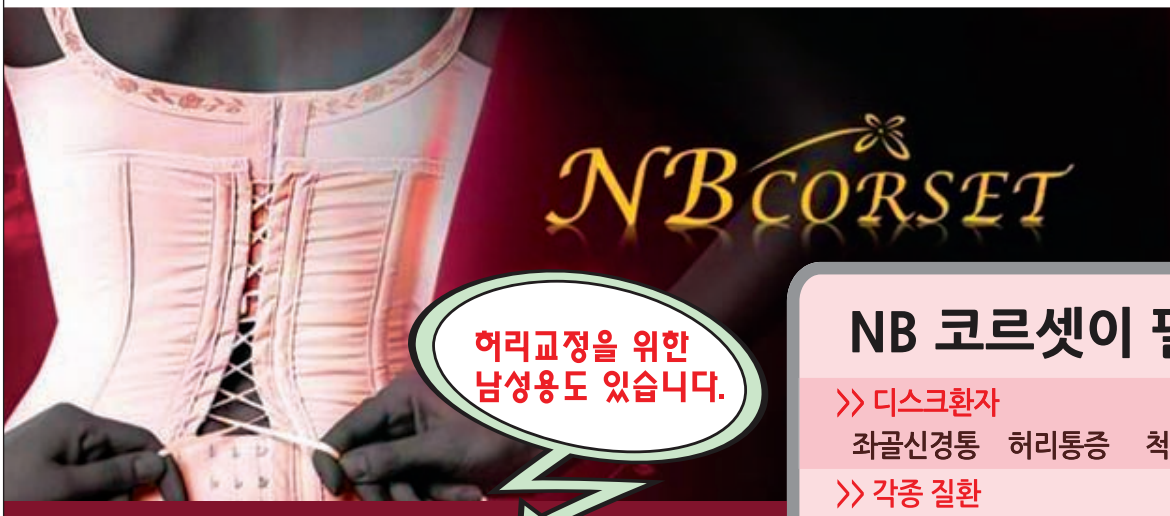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를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제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999 down = \$1250 lease cash, \$500 rebate, \$400 college rebate, \$1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10,000 in excess of \$1,5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999 without \$1,250 lease cash.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999 down = \$1250 lease cash, \$500 rebate, \$400 college rebate, \$1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10,000 in excess of \$1,5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999 without \$1,250 lease cash.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본질에 집중하면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 밸리하나로교회 박성호 목사 “교회의 대사명 이루기 위해선 방향성 분명해야”



박성호 목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밸리하나로 교회의 박성호 목사를 만났다. 2004년 오스본에 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당시 그를 고민에 빠뜨린 질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였다.

### 밸리하나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004년 오스본 히스패닉 교회를 빌려 처음 시작했다. 마태복음 16장의 ‘주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주님이 가장 크다고 한 계명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사명인 ‘제자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서 핵심가치를 뽑았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하는 것이고, 가라는 것은 선교고 세례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해 이를 5가지 비전으로 삼았다. 매해 그 비전에 맞는 표어를 정하고 그 비전에 맞춰 설교했다. 2004년에 워크숍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10년 동안 그 비전에 맞춰 교회를 이끌었다. 비전에 맞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 연속 설교했다. 올해는 나눔과 섬김을 비전으로 삼았다.

### 10주년을 맞은 소감은?

이민교회 개척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질에 집중하려 했다. 개척 2년 만에 현재 건물 구입했는데 구입 과정도 극적이다. 2005년 멕시코 티화나에 선교를 가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본 중고등생들이 거기에 교회를 짓고 싶어 했다. 당시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액으로 20만불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모금액을 다 드렸다.

그후 개척 2년 만에 교회 건물이 나왔는데, 교인들이 건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건축 헌금을 한 번만 하겠다. 필요한 금액이 한 번에 모금되면 건축하겠다’고 했다. 딱 그 비용만큼 모금됐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매달 납부액을 내는 것도 힘에 부쳤으나 성도들이 헌신해 한 번도 납부액을 내지 못한 적이 없었다.

### 올해 비전은 어떻게 실천하나?

손수 교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백인과 히스패닉을 초청해서 거러지 세일을 열어 물품들을 무료로 드렸다. 또 히스패닉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회를 빌려드리고 있다. 2세 아이들은 히스패닉 아이들과 함께 위성과 단막극을 준비해 공연했다. 교회 주변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담당 경찰을 불러서 마약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논의하고 보이스카웃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성가대 솔리스트들이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구제와 섬김’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구제와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된 역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는다. 그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으로 삼고 깊이 묵상한다. 많은 분이 설교는 ‘선포’라고 표현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설득’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를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끊임없이 설득한다.

수요일에는 교회문을 중심으로 ‘왜 교회가 중요하냐’를 가르쳤다. 헨리 블랙커비의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플로새서, 에베소서 1의 말씀을 통해 교회론에 대해 나눴다.

### 교회론을 통해 배운 결론은?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역설적이고 위험한 말인데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저는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 가족이 아닌데 ‘가족’의 흥내를 내는 것이란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사도행전 17,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많은 부분을 바쳤으나 성령을 속여 죽사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의 위상이 약화되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나 오히려 뒷부분에는 백성이 그 교회를 칭찬했다고 기록됐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다. 그만큼 믿음의 기준이 높았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숫자는 늘지 몰라도 진정한 제자를 길러낼 수 없다.

### 교인들을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어렵지는 않나?

기존에 신앙을 한 분들은 비우는 것을 어려워 하나 처음 믿는 분들은 더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따른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니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믿는 게 힘든 것’이다.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주변의 멘토가 중요하다. 옆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하면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 자아의 문제 해결 방법은?

자아의 문제는 십자가밖에 없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갈릴리는 지형의 특성상 표층에 물고기가 산다. 이를 잘 아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러한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면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다.

###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했나?

영적 리더가 될 그룹을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육목사로 있으며 청년부 15명을 섬겼다. 그때 핵심이 될 이들 8명에게 리더십 과정을 진행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역사관을 심어줬다. 그중 7명이 그 과정을 마쳤다. 과정을 끝내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청년부가 50명으로 늘었다. 처음 이 교회도 20대 2가정, 30대 2가정, 40대 2가정, 50대 2가정으로 시작해 이들을 훈련했다.

### 교회 안의 문제로 상처를 입고 배회하는 이들도 많다.

상처받은 교인뿐 아니라 상처받은 목회자도 많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아의 만족이 안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했듯 목회자도 그런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목회하면서 짜증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다.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에서 천 번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항상 싸워야 했다고 하셨다.

이민교회의 화두는 안식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 15분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속에서 뒤로 물러선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이미 그렇게 된 교회를 찾아가려는 것이 문제다. 많은 교인이 ‘컨슈머 교인’이 되어 버렸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교회를 찾아 메뚜기처럼 옮겨 다닌다.

### 교계에 설교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은 후배 목사에게 설교에 대해 깊은 고민이 담긴 책을 많이 읽어

보라고 말한다. 이동원, 강준민 목사님 등의 책을 읽으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성서신학을 배울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주석을 읽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찾은 다음에 주석을 바라. 주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보라’고 배웠다.

설교에 대해 깊이 고민한 목회자들의 책을 많이 보며 해안을 얻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것이 안 나오는 것이다. 설교 표절의 가장 큰 이유는 설교가 너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한다.

###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아버지의 부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일주일간 굶으며 고민했다. 감리교신학대 신학과에 입학했으나 도저히 신학대를 못 다니겠더라. 학원에 다니며 삼수를 준비했으나 또 떨어졌다. 수업은 군대 끌려가기 싫어서 F학점만 피했다.

어느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나 어느 길을 선택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선배의 조언에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가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도 주일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지만 종교 의식이 있을 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때 마음을 잡고 이 길에 들어서게 됐다.

###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많은 교회가 개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잘하나 지역 속에서 그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에는 약하다. 밸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경찰서는 어디인지 알고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게토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과 연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인교회는 게토로 끝날 것이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도와줄지’ 고민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 주소: 8131 Tampa Ave. Reseda, CA91335

전화: 818-709-7733

홈페이지: www.valleyhanaro.com 한 주디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감작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런분께 ...**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3523 W. Olympic Blve. #102  
Los Angeles, CA 90019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